



[임시정부 100주년]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의미 04



Life

[르포] 4086가구 '매머드' 수원 푸르지오 자이 08



스위스 모르쥬 툴립축제.



매화가 만개한 히라도 다자이후 텐만궁.



분홍색 목련이 만개한 오스트리아 마카르트광장.

/잘츠부르크랜드 주 관광청

목련, 툴립, 벚꽃... 꽃내음 따라가니 아! 봄이다

메트로 트래블

지난주 서울 및 전국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경보령이 내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몇일째 발령된 3월 첫주는 지나갔다. 3월 둘째주, 추운 날씨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잔인한 4월"이 오기 전, 코에 산뜻한 바람을 넣어주는 봄 여행을 준비해보자. 3월에 꼭 관심있게 봐야 할 여행지 및 팁 몇가지를 [메트로트래블]에서 추천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꽃 구경 ▲노르웨이 올레순 피오르드 탐험 ▲부산출발 일본 히라도 꽃놀이 ▲하니무너 대상 12만송이 스위스 모르쥬 툴립축제 ▲화이트데이 제주여행 ▲허츠(Hertz) 봄맞이 해외렌트카 특별 프로모션 등 춘분이 오는 이 때 야무지게 봄 여행을 떠나보자.

건축과 꽃의 조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봄 여행 하면 유럽 오스트리아 서부 잘츠부르크주(州) 꽃 구경을 빼놓을 수 없다. 봄이 되면 잘츠부르크 시내에 있는 마카르트광장엔 분홍색 목련이 줄지어 만개한다. 바로 바로크 양식 건축물과 흐드러지게 핀 목련이 함께 어우러져 인생 샷을 찍기 좋은 장소기 때문이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장미 가든은 수백 개 붉은 장미들로 가득 찬다. 특히 이 정원의 중심은 호엔잘츠부르크 성과 자수화단 꽃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유명한 사진 스팟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쭉부터 다소 생소한 에델바이스, 아나카, 마르타곤 백합같이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자연에서 액티비티를... 노르웨이 '올레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노르웨이 올레순만큼 좋은 곳이 없다. 노르웨이 피레오그롬

스달 주의 항구 도시 올레순은 산과 피오르드가 바다를 만나는 곳으로 독특한 자연 환경이 올레순의 가장 큰 매력이다. 408개 단위의 악슬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올레순의 전경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다.

3~5월, 일본에서 벚꽃놀이를...

봄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일본은 벚꽃 개화 시즌이 되면 개화(開花)예정일을 발표하고 전세계 관광객들을 들뜨게 한다. 일본의 대표적 명산인 후지산과 후지산 기슭에 있는 5개 호수 중 하나인 가와구치코 주변을 강추한다. 이곳은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후지산과 벚꽃, 그리고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높다. '지구투어'가 추천하는 '배타고 가는 일본 히라도 꽃 여행'도 한표 줄 만하다. 24만9000원으로 부산에서 일본 히라도를 2박3일 왕복하는 패키지상품이다. 뉴

카멜리아호를 타고 학문의 신을 모신다는 '다자이후 텐만궁', 사이판 만세절벽을 닮은 '시오다와라 주상절리', 히라도 최고 경관 '가와치도계' 등에서 매화 등 만개(滿開)가 다가오는 일본 꽃들을 맘껏 감상하고 일본식 료칸에서 온천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연인과 함께 툴립축제 '스위스 모르쥬'

십이만송이 툴립축제가 열리는 스위스 모르쥬는 꼭 가봐야 할 축제다. 특히 하니무너 및 연인이라면 말이다. 로잔(Lausanne)에서 기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모르쥬는 매년 툴립축제가 열린다. 매년 봄, 날씨에 따라 4~5월 축제 일정이 잡힌다. 툴립 축제에 이어 근처 뷔이유링 성 정원에서는 아이리쉬와 수련이 한 가득 피어난다. 특히 이곳은 올 봄 하니무너라면 꼭 방문해야 한다. 왜냐면 로맨틱한 사진을 꼭 찍어야 하니까...

제주도에서 로맨틱한 화이트데이를

3월 14일 '화이트데이' 전·후엔 자유투어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추천한다. 유럽선 타고 여행 하는 '아시아나연합'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젊은 커플들은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마레보 리조트-제주 렌트카 자유여행 3일(15만4000원부터)' 상품을 강추한다.

알아두면 좋은 봄 여행정보

3월, '허츠 해외렌터카' 프로모션을 눈여겨 보는 것도 체크리스트다. 31일까지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최대 20% 할인, 호주·뉴질랜드는 4월 30일까지 6일 이상 렌트시 1일 무료, 아시아에서는 15달러 할인 등 알뜰한 팁들이 있다. 지난 8일,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은 전세계 7800명 여행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27%가 "휴가계획

세우는 일은 스트레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투어 김영일본부장은 "지금은 50~60 세대가 여행의 키를 쥐고 있다."며 "테마상품·기획상품(전통요리, 소도시여행, 골프여행) 등 집중력있고 차별화된 상품만이 만족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가격 플랫폼사 '호텔스컴바인'은 직원 대상으로 '3월 추천 여행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이며 괌, 몰디브, 대만 등 온화한 기후 여행지가 추천을 받았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추천하는 '전 세계 유명 벚꽃 여행지 6'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 ▲창원 진해군항제 ▲베트남 디엔비엔푸 ▲미국 워싱턴 D.C.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메도스공원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공원 ▲일본 교토 등 세계 곳곳의 분홍빛 가득한 봄을 온전히 느껴보도록 하자.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유럽의 '지붕' 스위스 융프라우요흐로 떠나볼까

스위스 융프라우 패키지가 더 다양해진다. 1912년 건설된 융프라우 철도는 스위스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세계문화유산 알레취빙하가 흐르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7일 방한한 우어스 케슬러 융프라우철도 대표는 "스위스 융프라우 지역의 새로운 길을 여는 'V-케이블웨이 프로젝트'가 2020년 12월 완공되면 융프



Top of Europe 스위스 융프라우요흐. /동신항공

라우요흐와 스키슬로프 등에 도달시간이 총 40여분 앞당겨진다"며 "3년전부터 어드벤처 시설이 추가돼 융프라우 어노

에서든 스키·하이킹·눈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5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V케이블웨이 프로젝트'는 총 4억7000만 스위스프랑(약 5300억원)이 투입됐고, 새로 운행될 아이거 익스프레스는 그린델발트 그라운드에서 융프라우요흐의 마지막 간이역인 아이거 글렛처를 15분만에 연결하며, '그린델발트-멘리헨 곤돌라(GGM)'는 그린델발트 그라운드에서 멘리헨을 새롭게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

여행 단신

모두투어 창립 30주년 기념식 가제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기념식을 가졌다. 우중용 회장을 비롯한 모두투어 전 경영진과 주요 임직원 및 자회사 사장단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 한옥민 부회장은 "모두투어는 대한민국여행 경제에 큰업적을 남겼다"며 "30년보다 더 밝은미래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안목으로 올바른 길을 나아가겠다"고 기념사를 밝혔다. /이민희 기자

참좋은여행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

대표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이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참좋은여행(대표 이상호)은 최근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제 5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참좋은여행은 고객이 만족하는 차별화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여성 고용,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해소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민희 기자